



KIA 한기주가 전지훈련지인 미국 애리조나 서프라이즈 텍사스 레인저스 볼파크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한기주 애리조나서 새 각오 “제 2의 야구 인생 이제 실력으로 말하겠다”

1억1000만원 연봉 재계약

이용규 3억원에 사인

“실력으로 얘기하겠다.”

KIA 타이거즈의 투수 한기주가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다.

한기주는 지난 31일 2011시즌 보다 1000만원 삭감된 1억1000만원에 연봉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연봉협상을 놓고 구단과 광활한 신경전을 벌인 한기주는 계약 마감일에 최후의 결정을 내렸다.

한기주는 “팔꿈치 수술을 하면서 지난 시즌 연봉이 삭감됐다. 지난해 재활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예정대로 복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삭감된 연봉을 제시받았다”며 “금액을 떠나서 삭감이라는 것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연봉 협상을 놓고 아쉬움이 남지만 한기주는 야구에 ‘울인’을 시즌 제 2의 야구 인생을 열겠다는 각오다.

한기주는 “운동을 하면서도 고민이 많았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된 만큼 야구 생각만 하겠다”며 “프로니까 실력으로 얘기해야 한다. 실력으로 당당하게 내년 시즌 큰 소리를 치겠다”고 밝혔다.

한기주는 2009시즌이 끝나고 수술대에 오르면서 자신을 괴롭혀 왔던 팔꿈치 통증을 털어냈다. 피칭 후 손가락이 부어올라 고생했던 한기주는 지난 11월에는 오른쪽 중지 염증제가 수술을 받았다. 몸 정비를 끝내면서 훌기분하게 참가한 스프링 캠프다.

한기주는 “손가락 수술을 받느라 겨울에 공을 던지



이용규

지 못했다. 지금 하프 피칭을 하고 있다”며 “지난 시즌 커브와 포크볼을 준비했었는데 손가락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시험을 하지 못했다. 이제는 부상이 다른 만큼 올해는 변화구로 실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마운드에 복귀한 지난 시즌이 시합무대였다고 밝힌 한기주는

“모든 투수들의 목표는 선발 투수다. 나의 최종적인 목표도 선발이지만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또 팀을 위한 역할도 해야 하는 만큼 주어진 자리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며 “선발이든 마무리든 더 정교하고 다양한 플레이로 팬들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KIA는 미계약자로 남아있던 외야수 이용규와도 연봉 계약을 끝내면서 2012시즌 연봉협상 테이블을 칠수 했다.

지난 시즌 0.333의 타율로 텁터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이용규는 2억원에서 1억원 인상(50%)된 3억 원에 연봉 계약을 끝내면서 팀내 4번째 고액 연봉자 자리에 올랐다.

팀 최고 연봉자는 4억9500만원을 받는 이범호이고 윤석민(3억8000만원)과 김상훈(3억2500만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31일 평창에서 끝난 바이애슬론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오른 문지희(왼쪽에서 두 번째)가 대표팀 동료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안군청 문지희 바이애슬론 아시아 선수권 2관왕

신안군청 문지희가 바이애슬론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문지희는 지난 31일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에서 열린 제7회 바이애슬론 아시아선수권대회 믹스接力(27k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지희는 스프린트(7.5km)에서는 2위를 기록하며 이번 대회에서 금 2, 은 1을 수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본을 꿰고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

전날 인디비주얼(15km) 경기에서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금메달의 흐거를 이뤘던 문지희는 대회 마지막날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2관왕을 차지했다.

문지희는 스프린트(7.5km)에서는 2위를 기록하며 이번 대회에서 금 2, 은 1을 수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키나와 캠프 참관단 모집

KIA 타이거즈 11일까지

KIA 타이거즈가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참관단을 모집한다.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편 투어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가 비용은 성인 119만9000원, 아동(2002년 2월생 이후)은 107만9000원이다.

투어 프로그램은 주니치 및 야쿠르트와의 연습경기 관람과 오키나와 관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선수 대표들과의 식사 및 사인회와 포토타임 행사에도 참가할 수 있다.

참관단 모집은 내달 11일까지 진행되며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30명 선착순이다. 스프링 캠프 편 투어는 신청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진행된다. (문의 마케팅팀 김잔 사원 070-7686-8043)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이종범

세계 프로야구 ‘불혹의 시대’

한·미·일·호주 40대 선수들 만만치 않은 실력 과시

호주프로야구에서 뛰는 구대성(43·시드니 블루스)이 포스트시즌에서도 인상적인 투구를 펼치면서 불혹을 넘겨서도 그라운드를 지키는 베테랑 선수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호주 야구의 수준이 한국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나이 마흔을 넘겨서도 여전히 위력적인 공을 던지는 구대성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한·미·일 프로야구에서도 구대성처럼 관록을 갖춘 40대 베테랑 선수들이 의욕적으로 정규리그 맥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스프링캠프에서 단내를 뛰어내며 훈련 중인 한국 최고령 선수 이종범(42·KIA)은 1999년 프로 데뷔 이래 올해 스무 번째 시즌을 맞는다. 전성기 시절의 호쾌한 타격과 빠른 발은 사라졌으나 작전 수행과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만큼은 젊은 후배들에게 뛰어지지 않는다.

‘진정’ LG에 복귀한 최동수(41)도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카와에서 매섭게 방망이를 풀리고 있다.

지난해 80경기에 출장해 타율 0.304를 때린 최동수는 능이은 타격 감각을 앞세워 LG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SK의 안방마 박경완(40)도 미국 플로리다주 베로비치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는 4월이면 만 45세가 되는 내야수 오마루 비스켈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1989년 프로에 입문한 비스켈은 지난해 뛴 현역 메이저리그 중 유일하게 1980년대를 경험한 선수로 견실한 수비로 정평이 났다.

올해로 50세가 되는 원손 투수 제이미 모이어도 롤로라도 로키스와マイ너리거로 계약하고서 스프링캠프에 초청 선수로 참가한다.

2010년 6월 이후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한 모이어가 빅리그 재입성의 기회를 잡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큰 뉴스가 될 전망이다.

자유계약선수로 너클볼을 잘 던지는 팀 웨이크필드는 지난해까지 유니폼을 입은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1년을



오마루 비스켈



아이모토

더 뛰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46세를 맞는 웨이크필드는 1992년 피츠버그에서 데뷔했고 1995년부터 17년간 보스턴 마운드를 지켰다. 그는 작년까지 통산 200승180패, 평균자책점 4.41을 기록했다.

일본에서는 원손 투수 아마모토 마사(주니치)가 눈에 띈다.

오는 8월이면 47세 생일을 맞는 아마모토는 3월30일 열리는 하로시마 도요카프와의 정규리그 개막전 선발로 나선다. 미·일 역대 최고령 개막전 선발투수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임창용(36)의 동료인 미야모토 신야(42·야쿠르트)도 노의장을 불태운다. 미야모토는 지난해 센트럴리그 3루수 부문에서 골든글러브를 받아 최고령 수상 기록을 수립했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밀알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미센팅, 3M코팅, 모비스센팅
- 맥과이어스클릭, 코팅, 실내클리닝,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케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이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냉장고,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디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자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전국 최저가 판매

국내최대 500평 매장

주차장 700명 주차걱정 끝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본인네비 매립

후방카메라

샤크안테나

= 12만원

= 98만원

= 6만원

= 10만원

= 30만원

= 22만원

= 37만원

= 19만원

= 33만원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트리트버튼

